

원저 INHA TECHNICAL COLLEGE 메이커

젊음의 내일을 준비하는
인하인의 매거진 원점메아리

2023.12 WINTER

인이와 하니가 간다큐

현장실습기업 기아(주) 지병근 팀장

명장멘토링

인하공전 명장 프로그램이 궁금해

지식스토리

호텔의 기원을 찾아서
영생을 향한 인류의 꿈

인하공감

유행어 '밈(MEME)', 어떻게 생각해?

Merry
Christmas

인하인 여러분,
즐거운 겨울 되세요!

CONTENTS

2	목차	: 인하의 겨울
4	원점문화축제	: 제49회 원점문화축제
8	인아와 하니가 간다규	: 현장실습기업 기아(주) 지병근 팀장
12	명장멘토링	: 인하공전 명장 프로그램 8팀
18	지식스토리	: 호텔경영학과 · 화학생명공학과
22	공모전	: 조선기계공학과 공모전 수상
26	인하공감	: 밈(MEME) 사용, 어떻게 생각해?
30	사진으로 보는 인하	: 건축학과 · 산업디자인학과
32	사진으로 보는 인하	: 혁신, LINC3.0 교육성과전시회
36	대학뉴스	: 새로운 학교 소식

INHA
TECHNICAL
COLLEGE
원점메아리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 | 발행처 인하공업전문대학
주소 22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 | 전화 032-870-2451
디자인 (주) 도시로온사막여우

이 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의 허락 없이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원점문화제

가을비에도 식지 않아! 타오르는 젊음

지난 9월 20일부터 이틀 동안 원점문화축제가 열렸어. 가을 비 소식에 걱정도 했지만 우리의 뜨거운 청춘에 찬사를 보내듯 저녁 즈음에는 비가 그치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걸렸지. 축제에서는 16개의 학과가 각자의 특성을 살린 체험 부스를 준비했어. 패션디자인학과는 DIY 체험으로 인형 키링, 그림 톱 제작체험을 했고, 건축학과는 건축물 퀴즈 맞추기, 산업디자인학과는 헤나체험을 진행했지.

평가홍보팀의 중고물품 거래 마켓 ‘쓸모있는 마켓’ 운영도 눈에 띄었어. 미추홀구청에서는 ‘환경보전과’, ‘일자리정책과’의 부스를 내서, 축제도 즐기고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만들었는데, 꼭 둘러 보았길 바라. 각양각색의 푸드 부스들로 중간 중간 에너지도 잘 충전했겠지? 배가 불러서 다 먹어보지 못한 게 아쉬워.

원점가요제의 열기와 밴드 동아리들의 힘찬 공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복면가왕 무대, 댄스 대회와 즉석 평가단의 재치도 정말 즐거웠어. 쿠기, 로꼬의 공연과 송하예, 프로미스나인의 화려한 무대도 빠질 수 없지. 넘치는 끼와 열정으로 가슴이 두근대는 장면들이었어. 다 함께 휴대폰 플래시를 흔들며 노래를 부른 순간을 잊지 못할 거야. 또 21일 동문의 밤 행사에서는 인하인들과 교수님들, 초대 손님들이 다 함께 맛있는 바비큐와 웃음과 이야기를 즐겼어. 우리 모두 인하인이라는 이름으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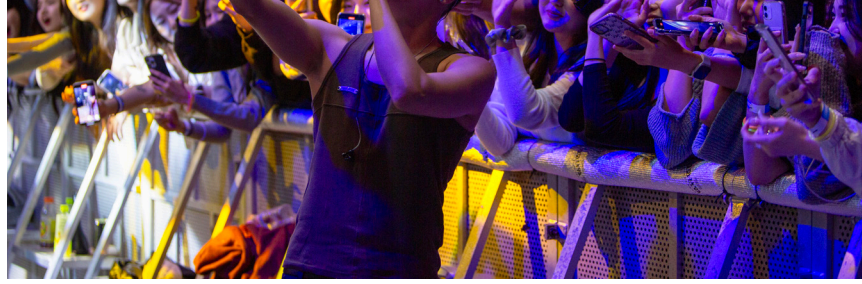
신나는 축제였지만 안전이 최고지? 교직원과 학생이 함께 조를 짜서 야간 순찰을 돌았어. 주류 판매도 엄격히 규제되었고, 행사의 이모저모를 빈틈없이 준비한 학생회는 첫날의 우천 때문에 걱정 반 기대 반이었다고 해. 하지만 비가 오는 중에도 무대 앞에서 행사를 기다리고 있는 학우들을 보고, ‘그래, 이런 게 청춘이고, 바로 우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후일담을 전해주었어. 다음 축제도 더 많은 학우들과 소통하고 나누고 함께 만들어가자. 파이팅!



잊지 마,
우리가 함께
웃고 열광했던
순간들을!



인하인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더 높이
날아올라





인이하니 인터뷰를
영상으로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지병근 팀장님!

반갑습니다!

인이와 하니의 좌충우돌 인터뷰

인이와
하니가
간다큐

해외에서 더 유명한 글로벌 기업! 기아(주) 현장실습으로 더 큰 꿈을 키우다

현장실습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인하공전의 여러 공학과와 연계하여 현장 경험을 나누고 있는
기아(주)의 지병근 팀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자.

팀장님 안녕하세요! 한국의 대표 자동차 기업 기아(주)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기아(주)는 1944년 설립 후, 'K5, 카니발, 스포티지' 등 여러분에게 친숙한 차량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완성차 업체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창사 이래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지요. 또한 전체 판매량의 약 80%인 236만 대를 해외로 판매하는 글로벌 업체입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고 있는 AutoLand광명은 기아(주)의 모태 공장이자 1973년 국내 최초로 일괄 생산체제를 갖춘 종합자동차 공장으로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요람에서 근무한다는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기아(주)는 막연히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큰 글로벌 기업이네요. 인하공전과는 어떻게 현장실습의 인연을 맺었나요?

인하공전과는 2013년 산학협력 MOU를 맺으면서 본격적으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MOU를 맺기 전부터 기아(주)와 인하공전은 긴밀한 관계였어요. 1974년부터 인하공전 졸업생 377명이 기아(주)에 입사했으며, 현재 AutoLand광명의 94명을 포함해 227명이 여전히 근무중입니다. 이런 오랜 인연이 현장실습으로 이어졌지요.



열심히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내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귀중한 현장실습의 시간을
꼭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은 어떤 학과를 대상으로 진행되나요?

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 항공기계공학과, 전기공학과, 조선기계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등의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이 왜 중요한가요?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을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며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현장 업무와는 간극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강조하지요.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실무 현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현장실습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짧더라도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아(주)만의 현장실습 장점을 자랑해주세요!

자동차 생산현장은 일반인은 물론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예요. 정교한 시스템이 잘 구축된 생산 현장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학생들은 생산 현장에서 현재 운용 중인 차량의 공정을 해보면서 최신의 트렌드를 경험하고 미래의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숙련된 엔지니어와 스텝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은 교내에서 배운 지식과 실습이 현장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현장실습을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부분이 있을까요?

자동차 생산직 업무는 교대근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체력과 성실성이 꼭 필요합니다. 회사는 최적의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로봇으로 자동화된 부분 또한 많아졌지만, 자동차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사람의 손이니깐요. 그리고 지게차 자격증을 따는 걸 추천합니다. 기아(주)에서뿐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기아(주)의 현장실습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통 6개월 기간이며, 현 직원들과 동일하게 주 5일, 일 8시간 근무해요. 채용 시 검진 및 안전교육을 받고, 숙련된 엔지니어들과 함께 프레스, 차체, 도장, 조립, 품질 등을 다루는 생산라인에서 일합니다.

실제 현장인원의 상당수가 조립라인에서 근무하는 만큼 현장실습 대부분이 조립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장관리자들이 실습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장점은 살리고 아쉬운 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이 더욱 충실해지도록 교육 내용을 학교와 꾸준히 공유하고 있구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생산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항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세요. 자신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현장실습에서는 회사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사회성, 팀워크를 경험하고 자동차 생산라인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될 거예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기아(주)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니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경험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현장실습을 하면 입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많은 인하공전 졸업생들이 앞서 기아(주)와 인연을 이어왔듯이 기아(주)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땀 흘려 일한 분들을 우대해요. 다만 생산직 채용은 단시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예요. 바로 정규 엔지니어 채용으로 이어지는 않더라도, 현장실습을 하신 분들은 채용 시 가산점을 드립니다. 면접을 포함한 정성평가 과정에서도 현장실습 경험을 높게 평가해요. 성실한 인하공전 실습생들과 기아(주)의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현장실습의 중요성에
대해 좀더 실감하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인하인들이
현장실습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길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명장과 함께한 빛나는 7주

산업디자인학과
장혜림

전자공학과
유준영

기계설계공학과
김영재

항공기계공학과
김도경

재료공학과
최정희

기계공학과
김기성

전기공학과
박경범

인하공전 명장 프로그램은 '대한민국명장회' 소속 '명장'들이 각 전문 분야와 연계된 인하인들과 직접 만나 멘토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이야.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팀들이 미래를 향한 비전과 설계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며 각자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들어볼까?

컴퓨터응용가공 홍기환 명장



기계공학과 김기성

팀원 최준호, 김우진, 권민재, 윤지섭

저희 팀은 각 파트를 나누어 진행하지 않고, 명장님의 지도 하에 모든 팀원들이 한차례의 결석도 없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완수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멘티별 진로 계획과 함께, SWOT 분석, 4차 산업 혁명의 소개, 멘티별 희망회사 자료 발표, NCS 기반 산업현장 적응 직무, 취업전략, HD현대인프라코어 현장 투어, 멘티별 개인 전략 점검 및 멘토링 Review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이론으로만 배웠던 기계산업분야 4차 산업혁명을 현장 실습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 동안 명장님께 지도받으며 계획한 목표를 멋지게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형 이대근 명장



기계설계공학과 김영재

팀원 박찬, 한병현, 정익승, 성창민, 최준, 정은모, 김태환, 박민웅, 최인호, 김원민

저는 팀의 조장으로 명장님과 함께 명장멘토링 경진대회의 ppt와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명장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가야하는 직종에서 정점을 찍으신 명장님께 노하우와 진로에 관하여 1대1로 지도받는 멋진 경험을 얻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명장님이 일하시는 드림텍솔루션의 현장 체험도 해보고 조장으로서 소소한 일들도 마다 않고 팀을 이끌며 매우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명장멘토링은 정말 인생에서 다시없을 기회이기 때문에 후배 여러분도 꼭 참여하여 명장님과 함께 넓은 시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보고 꿈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기계정비 김주호 명장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정종호

팀원 박유현, 정지웅, 배성빈, 이동규

강의 시간에는 전공에 관한 지식들을 배우고, 짬짬이 자격증, 면접,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팁까지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명장님이 명장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일에 임하시는 모습을 직접 가까이서 보고 들은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명장님이 일하고 계신 산업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건설 장비들이 완성되어 시장에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보고, 건설 기계들에 매력을 느껴 목표 기업이 생겼습니다. 저는 명장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을 생업수단으로만 생각하던 것에서 나아가, 자신만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학년 때 명장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 좀 더 일찍 목표의식과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었겠다는 아쉬움이 남았기에 1학년 학생들도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배들도 꼭 명장멘토링에 적극 참여하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전자기기 김랑기 명장



항공기계공학과 김도경

팀원 오지용, 조은희, 나형준, 윤성빈

저희 팀은 Kicad부터 아두이노, MIT App Inventor, Fusion360 등 기초 회로 설계부터 외형 제작까지 RC카 제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학습했습니다. 시간 부족으로 완벽하지 않았지만 RC카 형태의 최종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신 명장님의 가르침을 다 담을 수 없어서, 넘쳐버린 것들을 더 담기 위해서 더 성장해야 한다는 확신과 스스로의 역량을 높인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항공 외의 분야였지만 대한민국이 인정한 한 분야의 최고 기술인에게 기술을 전수받고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분야는 달라도 야망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졌기에 멘토링 진행이 더욱 매끄러웠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신 인하공업전문대학 산학협력단과 대한민국명장회에 진심으로 감사사를 전합니다.



전기 안연환 명장



전기공학과 박경범

팀원 이채연, 오건우, 윤운, 김대성

명장멘토링은 실무 교육과 이론 교육 및 현장 견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조원들을 통솔하고 ppt를 제작하고 발표하였습니다. 학생의 입장으로 실무 관련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GTX 변전소나 실제 아파트 변전실과 같은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다양하게 알아보고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론으로만 배운 것을 직접 보니 훨씬 흥미로웠고, 명장멘토링 경험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후배들도 꼭 명장 인터뷰에 참여하기를 적극 권합니다.



전자기기제작 박찬덕 명장



전자공학과 유준영

팀원 유준영, 이준재, 김범규, 윤정민

전자공학의 기초 이론 및 반도체 개념에 대한 교육과, 명장이 되는 법, 특허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각자 진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명장님이 재직 중이신 기업에서 개발 과정을 지켜보며 직접 직무도 해보고, 함께 2023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에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출원하고 싶은 아이디어 제품을 생각하고 유사 제품을 알아보며 특허 출원과정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명장멘토링으로 전문성과 비전을 한 단계 높이게 되었습니다. 자기성장과 미래 설계를 더욱 구체화하며, 명장님과 같은 자신만의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층 성장한 미래를 꿈꾸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명장멘토링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금속재료제조 김보현 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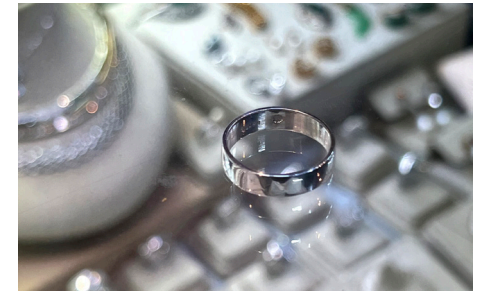


재료공학과 최정희

팀원 김강민, 김민성, 김윤탁, 송수한, 조도연, 홍성재

명장멘토링은 실제 산업 현장의 명장님과 교내 학생들이 팀이 되어 산업 현장의 분위기, 필요로 하는 요소, 그에 맞는 자격증, 최신 트렌드 등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한데 모아 명장님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소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멘티 대표로 명장님과 일정 조율, 산업체 확인, 다른 학우들의 궁금증 및 바라는 점 등을 취합, 정리하며 명장님과 소통을 담당하였습니다. 저희는 작은 업체를 견학하였는데요, 책과 영상에서만 볼 수 있던 공정 및 작업들을 한눈에 보고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명장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수업을 토대로 멘티 전원 자격증 취득, 자격증 필기 취득 등 실제적인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명장멘토링이 끝난 이후에도 명장님과는 계속 연락을 유지하며 궁금하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도움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원하는 분야의 명장이 되어 저와 같은 학생들을 돕고 싶습니다.

귀금속공예 박창순 명장



산업디자인학과 장혜림

팀원 김채아, 황민하, 박지원, 윤설

저희 팀은 금, 보석 이론 등 귀금속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수업을 받고, 반지를 디자인해 보고, 이를 토대로 명장님의 연구실에 방문하여 제작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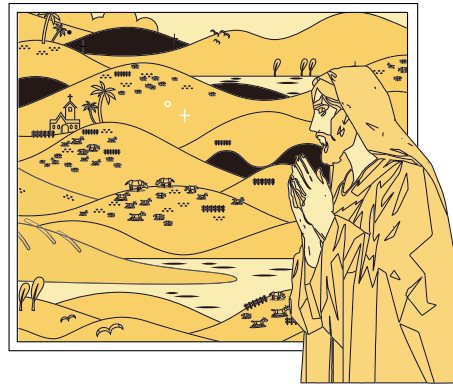
혼자 일하는 시간이 대부분인 디자이너와 공예가들에게 다소 취약한 대인관계이론수업, 진로 탐색, 직무 검사를 통해 진로를 구체화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전부터 관심 있던 금속공예 전반에 걸친 수업을 받고, 제작까지 경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디자인 전공과 접합하여 더 다양한 작품과 상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가능성과 여러 선택지가 생긴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마무리에는 팀대표로 경진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명장님은 귀금속 분야뿐 아니라 학생들 개개인의 직업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습니다. 명장님, 함께 수업한 멘티들, 정말 고생하였고, 함께한 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이

호텔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여행에서 호텔은 휴식처이고, 기억의 전부가 되기도 해. 여행자들의 쉼이자 여행지의 인상을 좌우하는 장소, 호텔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호텔의 기원

고대인들은 낯선 이를 환대하는 것을 신에 대한 의무처럼 여겼어. 이방인과 여행자에 대한 ‘손님맞이’는 기원전 9세기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에서부터 등장하듯이 인류학적으로도 오래된 관습이야. 여러 가지 종교와 신화 속에서 한밤중에 초라한 행색의 이방인으로 변장해 문을 두드리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잘 대접하면 상을 받고 소홀히 하면 벌을 받기도 했어.

공공 숙소는 통치를 위한 수단의 일부이기도 했어. 로마는 방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도로를 닦고,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인 20마일 마다 먹고 잘 수 있는 공간을 하나씩 두었는데 이게 호텔의 기원이야. 이 길들은 중세를 거쳐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

중국은 당나라 때 전국 방방곡곡 관도를 내고 역참을 두어 자연스레 먹고 쉴 수 있게 했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삼국사기>부터 기록을 찾을 수 있어. 우역驛驛은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관리의 숙박을 제공하던 국가 관리 시스템인데, 잠자리와 먹을 것은 물론 말을 제공하기도 했어.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은?

대한민국의 근대식 호텔은 1888년 인천 중구 중앙동에 일본인 사업가 호리 규타로가 세운 ‘대불 호텔’이 최초야. 이후 세워진 ‘스튜어트 호텔’이나 ‘꼬레 호텔’ 등 여러 호텔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경영했어. 서울에 가장 먼저 생긴 호텔은 1901년의 정동 덕수궁 대한문 앞에 프랑스 인이 지은 ‘팔레 호텔’이야. 이즈음 호텔이 상류층의 사랑방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커피 문화를 처음으로 알린 곳으로 유명한 ‘손탁 호텔’은 독일인 여성 손탁Antoinett Santag이 지었고 외국인 여행객들은 물론,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계 인사들의 문화살롱 같은 역할을 했어.

현존하는 호텔 중에서는 1914년에 건립된 ‘조선 호텔(현 웨스틴 조선 호텔)’이 고급 호텔의 초석을 놓았고, 가장 역사가 깊어.



서비스업의 최전선에 선 호텔들

이동수단의 발달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요구도 다양해지자, 호텔도 그에 발맞추어 휴가와 휴식 외 레저와 오락거리 등 부대시설을 갖추기 시작했어. 최근 유행하는 트렌드를 적극 활용한 부티크, 웰니스 등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개성있는 호텔들도 등장했지. 여행객들은 이제 호텔 자체를 누리기 위해 호텔을 방문하기도 해.

호텔은 세계 각지에서 온 다양한 관습과 문화의 여행객들을 맞는 서비스업의 최전선이야. 세심한 시설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친절과 정성을 다하는 호텔리어들의 최고의 서비스를 만날 수 있지.

호텔경영학과

Department of HOTEL MANAGEMENT

호텔서비스 기초부터 상황별 응대까지 현장감 있는 강의와 실습 등 국제화되고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텔 및 카지노 등 전반적인 현대산업에서의 서비스 능력 배양을 통해 글로벌 호텔 및 카지노 비즈니스업계에서 대고객 서비스를 담당할 전문서비스인을 양성합니다.

만나고 머무르고 떠나고, 돌아오는 장소.

문에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벨맨이 인사하고, 프런트 데스크에선 수많은 여행객들을 여유 있고 능숙하게 안내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누리는 동안 조용히 빈 잔과 그릇이 사라지고 채워져. 음식에는 계절의 맛과 지역의 개성이 듬뿍 담겨 있지. 객실은 언제나 쾌적하게 정돈되어 있고, 언제나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프런트 오피스가 24시간 열려있어.

각양각색의 여행객들을 접객하는 호텔 안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 장 같아.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빈틈없는 서비스를 연주하며 여행객들의 안전과 휴식을 책임지고 있어. 이렇게 여행지와 호텔의 인상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멋진 호텔리어들, 정말 대단하지? 바리스타, 소믈리에, 호텔서비스사 등의 자격증은 기본이고 국내 최고급 호텔과의 산학협력은 물론, 국제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인턴쉽 프로그램으로 해외로의 취업까지 활짝 열린 인하공전 호텔경영학과에서 자부심 넘치는 호텔리어를 함께 준비해볼까?

02

인류는
영생을 이룰 수
있을까?

젊고 건강하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인간의 오랜 꿈이야. 불로불사에 대한 멈추지 않는 욕망으로, 역사와 종교에 걸쳐 영생을 좇는 인류의 기나긴 여정은 결국 성공할까?

태고의 신화부터 영원을 꿈꾸다

영생에 대한 언급은 나라와 문화, 신화, 종교를 넘나들어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기원전 2000년 전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길가메시는 불로불사의 방법을 찾아 헤매지. 인도의 경전 <리그베다>에서는 불사의 음료 ‘암리타’를 두고 신과 악마가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 중국에는 도교의 3000년에 한번 열매 맺는 복숭아 ‘선도’ 설화, 불로불사의 영약을 찾아다닌 진시황제의 ‘불로초’가 유명해. 그리스와 유럽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올림포스 신’들과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나는 전사들의 이상향 ‘발할라’ 이야기가 전해지고.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방법, 힌두교에서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윤회’, 불교에서는 삶의 고통을 벗어나 ‘열반’에 드는 법 등을 가르치고 있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인류가 영생을 손에 넣는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 될까? 기계공학의 발달로 아이언맨처럼 강화된 기계 육체를 장착할까? 생명공학의 힘으로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는 텔로미어 세포를 재프로그래밍하거나, 자가 복제한 새 몸에 영혼을 전이할까? 성장했다가 다시 폴립으로 축소되면서 영원히 사는 ‘작은보호탑해파리’처럼 나이드는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들며 현생을 유지할까? SF에 나오는 것처럼 사이버 세상으로 영혼을 전이하거나, 혹은 종교의 오랜 가르침대로 삶의 방식을 전환함으로써 비로소 영생을 누리게 될까?

영생, 어디까지 왔니?

과거 인간의 수명은 평균 30~40년 정도였고, 60~70이면 굉장히 장수한 편이었어. 오늘날은 100세를 바라보며 40이면 청년, 60부터는 터닝 포인트로 시니어 교육이 활발해.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한 세기 남짓한 사이에 실제 평균 수명은 두 배 늘어나고 더 건강한 몸을 오래 유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은 불로불사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에서 “죽음은 해결할 수 있고, 또 해결해야 할 기술적 문제”라고 언급했어. 실제로 수많은 부자가 불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노화 역전을 가능케 하는 ‘세포 재프로그래밍’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를 설립했고,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도 노화 방지 연구에 열을 올리는 중이야. 미국의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스(45세)는 매년 약 200만 달러를 자신의 신체에 투자해 18세로 육체 나이를 되돌리고 노화를 늦추기 위한 화학적, 물리적인 모든 방법을 시도하는 중이야. 불로불사에 도전하고 있는 억만장자들은 현 시대의 진시황제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발전을 위해 연구 성과를 응원하며 지켜본다는 점에서는 조금 다른 거 같아.

생물학적 영생의 긍정적 가능성

스페인 생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평균보다 40% 더 오래 사는 생쥐를 만들어냈고, 북미 연구자들은 ‘노랑초파리’의 기대수명을 4배로 연장하는 데 성공했어. 미국 아칸소대 연구진은 ‘예쁜꼬마선충’의 수명을 10배까지 늘렸어. 현재의 과학 기술 발달 추세로 봤을 때 수십 년 안에 인간의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신약이 실제로 등장하리라 낙관 중이야. 이 모든 성과는 바로 화학을 기반으로 한 생명공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 덕분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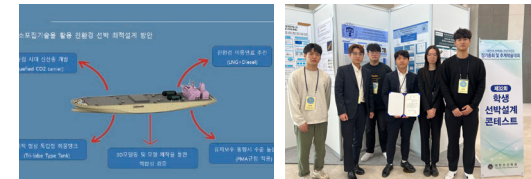
인하공전 화학생명공학과에서는 최신의 커리큘럼으로 기초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등 화학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어. 특히 생명·바이오 교육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하게 관련된 바이오화학제품 제조, 생명 및 바이오공정 관리, 환경분석 산업군에 진출하여 인간 수명 연장에 적극 기여하고 있지. 인류의 가장 원대한 꿈, 불로불사를 향해 함께 약진해 볼까?

화학생명공학과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화학생명공학과는 화학공학과 생명공학의 이론 및 실험실습 교육을 통하여 화학 및 바이오 분야의 물질분석, 공정관리, 제품생산에 관한 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한다.

조선기계공학과, 전국 공모전을 누비다! ①

팀장
박지원팀원
김원정

선박설계콘테스트

우수상 수상

조선기계공학과 박지원 팀

(팀원 양현모·김기석·김태균·노윤철·오정택·이상운·이종휘·김주훈·박길남·박인석·김원정)

‘제32회 전국 학생 선박설계 콘테스트’는 대한조선학회가 주최하는 대회로,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두 가지를 동시에 심사합니다. 저희 팀은 자유과제인 ‘탄소포집기술(CCUS)’을 활용한 친환경 선박설계방안을 주제로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상(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탄소포집기술(CCUS)’은 발생한 배기가스 내의 이산화탄소를 별도로 분리해서 다른 물질로 전환하여 활용하거나, 별도의 장소에 격리·저장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IPCC 6차보고서에서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가 아니라 ‘지구열대화(global boiling)’라고 언급할 정도로 이상기후가 심각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탄소제로를 목표로 한다면 ‘탄소포집기술’을 필수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를 최대한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선박을 설계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목표였습니다.

저희 팀은 탄소중립 시대에 요구되는 신선종의 개념설계를 적용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설계하였습니다. 친환경 ‘이중연료(Dual Fuel)’ 엔진과 최적의 독립형 화물 탱크, 유지보수가 편리한 설계로 연료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3D 프린팅을 이용해 주제에 해당하는 적합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지도교수님의 가이드를 바탕으로 팀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우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구열대화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 시대에 필요한 탄소포집 기술과 미래 선박 시스템을 연구하겠습니다.

조선기계공학과, 전국 공모전을 누비다! ②

팀장
고영훈팀원
정찬민팀원
김상현팀원
주경상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

장려상 수상

조선기계공학과 고영훈 팀 (팀원 김상현·정찬민·주경상)

‘제4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은 해양경찰청에서 주최한 ‘친환경 연안 구조정 개념 설계’를 주제로 진행된 공모전입니다. 전국 12개 대학 19개 팀이 출전하여 6개의 작품을 선발하였는데, 저희 팀은 그 중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 훈격을 가진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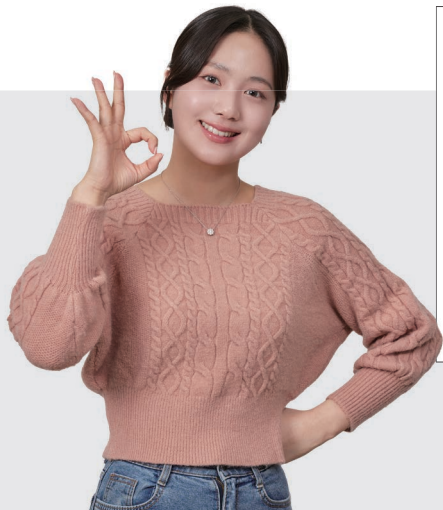
저희가 발표한 연안 구조정 설계구조는 친환경적 ‘미래 지향형 쌍동선형 연안 구조정’입니다. 디젤과 전기가 합쳐진 하이브리드 엔진과 자율운항시스템을 적용하여 연료를 절감하는 한편 운항 경로를 최적화하고 최대 30노트까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쌍동선형태로 구조정에 넓은 갑판 공간을 확보하여 기존에 있던 연안 구조정들의 공간 활용 문제를 해결하고, 다수의 구조 인원을 수용, 해상구조용 드론과 RC구명보트 등을 탑재하여 해상 구조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공모전에는 ‘미래지향형 쌍동선형 연안구조정’의 설계내용이 담긴 개념설계 보고서와 A3크기의 요약본, 직접 모델링한 3D로 프린팅 축소 모형을 출품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선박과 미래에 필요한 시스템을 연구할 수 있었고, 조선기계공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짧은 여름 방학 동안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팀원들과 많은 도움을 주신 지도교수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인·하·공·감

유행어 ‘밈(MEME)’의 사용, 어떻게 생각해?

‘밈(MEME)’이란 인터넷 상에서 유행하는 문화 요소이자 대중문화의 일부로, 1976년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문화의 진화를 설명하며 처음 사용했어. 순식간에 확산되는 유행어 ‘밈(MEME)’,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의견을 나눠볼까?



밈을 상황에 따라 재치있게 사용하면 한순간에 유쾌한 분위기를 확 퍼뜨릴 수 있어.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서 히트 친 드라마 ‘더 글로리’의 찰진 대사들, ‘멋지다 00야’, ‘폼 미쳤다, 폼미’ 등을 가벼운 응원과 칭찬으로 쓰면 다들 웃음이 빵 터졌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슬쩍 장난식으로 ‘~라고 할 뻔’, 바라는 일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때 ‘~겠냐’를 쓰면 말하고자 하는 바도 확실히 전달하면서 대화 자체도 더욱 웃기고 즐거워져.

찬성 | 항공운항과 김민서

내 생각은 정 반대야. 그 드라마를 안 본 사람들은 그 말투가 아주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 알아? 비웃거나 비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 같은 배경지식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 상대방에게 공격적이나 배타적으로 느껴진다면 다양한 사람들과 매끄러운 대화를 이어가기 어렵지 않을까? 대화 중에 밈을 쓰면서 다들 웃는데 나만 못 알아들어서 소외된 기분이 든 적도 있어.

항공운항과 김다민 | 반대

YOLO
올로

츄수저

자만추

JMT

취존

위라벨

탕진잼

TMI

존버

THE LOVE
더럽

노오력

별다줄

뇌피셜

댕댕이

밈을 쓰면 그 밈을 알고 함께 웃는 사람과 친밀도가 높아져. 네가 소외감을 느낀 이유를 알겠어. 그럴 땐 가볍게 물어보라고~ 같이 웃을 수 있잖아? #가보자고! 이걸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인데 어때? 밈은 짧으니까 전파력도 정말 빨라. 너도 금방 배웠지?

그러게. 하지만 짧은 전파력만큼 지속 시간도 짧아. 대부분의 밈은 배워서 쓰려고 할 땐 이미 한 물 가서 시시해졌을 걸. 예능 프로그램만 봐도 밈을 포함한 자막이 많은데 벌써 촌스럽고 유치해 보여.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시는 부모님은 밈을 이해를 못하셔서 재미없어 하셨고. 잦은 밈 사용은 세대 사이의 공감 능력도 떨어뜨리는 거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쉽네. 정치, 사회적 이슈는 어때? 뉴스의 무거운 이슈에 밈을 사용하면 한결 가볍게 풍자할 수 있잖아. ‘전청조 사건’ 알지? 여성인데 재벌 3세 남성인 척 혼인빙자 사기 결혼을 시도하고, 약혼자의 유명세를 이용해 사기 친 사건 말이야. 그 ‘전청조’의 ‘I am 신뢰예요’는 아주 좋은 예시 같아. 거짓말쟁이 사기꾼의 말을 드러내어 조롱하는 거 너무 통쾌했어.

짧은 조롱으로 쉽게 시원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오히려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할 이슈들을 너무 가볍게 지나쳐 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밈이 통제가 불가능하고, 원래 태생의도와는 다르게 아무데나 쓰이는 것도 문제야. ‘I am 신뢰예요’를 LG유플러스가 “I am 현혈이에요. Next time 없어요.”로 사내 인터넷에 사용했다가 부랴부랴 내리기도 했다. 저질 밈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임직원이 보는 공지예까지 써버린 거지. 밈을 쓸 때는 그 출처와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한번 더 생각하는 게 좋을 거 같아.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행사할 기회도 주지 않고 주인도 모른 채 돌아다니는 밈들도 많아. 특히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마케팅에 밈을 사용할 때는, 그 밈을 만든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료를 제대로 지불했을까? 밈은 유행어처럼 단순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드라마의 한 장면이나 대사, 혹은 틱톡처럼 누군가 공들여 만든 짧은 영상이나 사진, 캐릭터일 수도 있어. 타인이 만든 것을 정수만 쏙 가져와서 멋대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



그건 그렇지. 사용에 금전적, 윤리적인 문제가 없도록 네가 말한 부분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 내가 사업을 한다면 재빨리 밈을 사용해서 홍보하고 싶은 할거야! 밈이 딱끈따끈할 때 얼른 말이야.

그러게. 밈과 붕어빵은 딱끈한 게 좋겠다. 하하. 밈을 잘 쓴다면 정말 재치있고 효과적일 거 같아. 옛날 사람들이 늘 고사를 인용하며 말했던 게 당대의 밈 사용이라 보기도 한다던데, 좀 공감되었어.



하지만 잦은 밈 사용은 어휘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면 좋겠어. 밈에 빠진 친구가 모든 말에 밈과 줄임말을 섞어 쓰는데, 전혀 못 알아들켰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고 되물어보면 설명하는 것조차 귀찮아했어. 밈을 쓰면 말이 단순해지고, 생각과 말은 상호 작용을 하니까 생각도 단순해지는 거 같았어.

아이고. 밈을 남발하는 건 얼른 고쳤으면 좋겠다. 밈은 특성상 생명력이 짧은 유행어니까 적재적소에만 짧게 사용하는 게 맞겠어. 남발하거나 무작정 따라하지 않으면 즐겁고 재미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해. 적절한 밈 사용, 오히려 좋아~~(이것도 밈이야!)

?!

밈(meme),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2023 건축학과 교육성과 발표회

지난 6월 5일부터 7일까지
건축학과의 교육성과발표회가
있었어. 열정을 기울인 멋진
작품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자!



2023 산업디자인 학과 졸업전시회

산업디자인학과의 제49회
졸업전시회가 3호관 1층
문화광장에서 열렸어.
기발하고 빛나는 아이디어와
뛰어난 창작품들이 가득해
눈을 땔 수가 없었지!

졸업전시회를
E-book으로
만나세요



인하공업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LINC3.0사업 교육성과 전시회

지난 11월 21일부터 이틀간
혁신지원사업과 LINC3.0사업의
우수 교육성과물 전시회를
교내에서 진행했어.
실내건축물, 산학협력품,
동영상, 실습실투어 등 다양한
전시물로 대내외 많은 인사들을
맞이해 성황리에 끝마친
2023 인하인의 결실이 빛나는
전시회, 한눈에 볼까?





2023년 9월 22일

인하공전, 청소년 진로 탐색 위한 항공승무원 직업 체험 부스 운영

우리 대학은 지난 9월 22-23일 양일간, 방화근린공원(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열린 '제10회 Dream Job 페스티벌' 및 제6회 학부모 진로 Job' 행사에서 항공승무원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강서구와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주관한 행사로, 학생,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및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렸다. 우리 대학은 이번 행사에서 항공 승무원 체험 부스를 열고 객실 음료 서비스와 기내 안전 용품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양일간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부스를 찾아 항공 승무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였고, 기내 안전 용품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은 "평소 항공 승무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기내 안전 용품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다. 부스를 운영한 항공운항과 김서현 학생은 "이번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항공 승무원에 대한 꿈을 이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25일

P-TECH 사업 대상 특성화고 업무협약 및 간담회 개최

우리 대학은 10월 25일(수), 오크우드프리미어인천 아스테리아에서 2024학년도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을 위한 <특성화고 업무협약 및 교장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우리 대학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사업에 참여 예정인 평촌경영고등학교를 비롯한 10개 도제학교에서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통해 대학 및 도제 고교 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우리 대학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사업은 구조해석설계_L4(스마트기계설계과)와 자동차차체도장_L3(첨단 스마트자동차과) 두 개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1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신규 선정된 훈련과정은 충무·인사_L5(디지털사무경영과)와 전자기기하드웨어개발_L3(스마트정보통신공학과)이다. 우리 대학은 2022년까지 총 13개 고교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번 협약을 통해 총 23개 고교와 협약을 맺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10개 고교는 평촌경영고등학교, 창의경영고등학교, 삼일고등학교, 분당아람고등학교,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한뫼고등학교, 군자디지털고등학교, 수원정보과학고등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이다.



2023년 10월 26일

인하공전, 「2023 Job Festival」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26일(수)부터 27일(목)까지 양일간 3호관 1층에서 「2023 Job Festival」을 개최했다. 올해의 취업박람회는 <다함께 Cheer Up(취업), 다함께 In Happy>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기호 취업지원처장은 개막식에서 "취업박람회는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참여 기업에게도 현장에서 우리 대학의 역량 있는 인재를 직접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며, 박람회 참여해 주신 학생과 기업 관계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한, 개막식에서는 지난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된 '인하학우 취업(Cheer Up)공간 쇼츠 경진대회'의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했다. 경진대회의 대상은 항공경영학과 강다현, 유채현, 항공운항과 박서현, 메가트로닉스공학과 장세현 학생의 작품 <취업걱정 없는 인하공전>이 수상했다.

올해 'Job Festival'에는 (주)대한항공, (주)진에어, (주)셀트리온 등 총 20여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채용관 △정보관 △컨설팅관 △전시관 △사진관 △이벤트관



등 총 6개 관으로 나눠 진행한 이번 취업박람회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통한 최신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컨설팅, 면접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김성찬 총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열린 취업박람회를 계기로 참여 기업과의 상호협력을 확대하고, 다양한 취업처 발굴과 협력을 통해 인하공전 학생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취업박람회를
영상으로
만나세요





2023년 10월 27일

인하공전, 글로벌 스피치 경진대회 개최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27일(금)에 '글로벌 스피치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스피치 경진대회'의 주제는 "How can we practice ESG in our life?"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방법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영어로 말하였다. 총 11명의 학생이 참가하였고, 참가 당일 현장평가로 점수를 확정지어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는 서울대학교 영문과 이동신 교수, 고려대학교 영문과 이운진 교수가 참석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시상은 우리 대학 교수협의회장 김현수 교수(조선기계공학과)가 진행했다.

수상자는 금상 1명(상금 300,000원), 은상 2명(상금 200,000원), 동상 3명(상금 100,000원)이다. 금상을 수상한 항공경영학과의 이가는 학생은 "글로벌 스피치 경진대회를 통해 ESG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영어 스피치에 대한 자신감을 얻어 기쁘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어학교양학부장 조동인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인하공전 학생들이 세계화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고, 학생들의 도전의식과 어학능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10월 27일

인하공전 건설환경공학과, 여러 경진대회에서 다수 수상

우리 대학 건설환경공학과가 대한토목학회에서 주관한 <2023 전국 대학(원)생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와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에서 주관한 <2023 콘크리트공시체 압축강도 추정 비파괴 검사 경진대회>에서 다수 수상했다.

지난 10월 19일(목)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3 전국 대학(원)생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는 건설환경분야 전국 최대 규모의 대회로, 우리 대학 건설환경공학과에서는 3팀이 출전해 3팀 모두 대상, 은상, 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상은 'Bridges of Thunder' 팀(류승한, 문해오름, 배유민, 신준영)이 교량위를 통과하는 전기차에 대한 자동 충전시스템을 구현한 친환경 스마트 교량 개념을 설계하여 수상했고, 은상은 'Moon명'팀(강지훈, 김경환, 임유나, 민경호), 동상에는 'Safety Seoul Safety Sewerage'팀(박원경, 윤강희, 이창익, 전진경)이 차지했다.

또한 건설환경공학과는 지난 10월 27일(금)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2023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 추정 비파괴 검사 경진대회>에서도 전유성, 민경호, 안성준, 최우도 팀이 은상을 수상하며 연이은 수상 소식을 전했다.



2023년 10월 30일

코드마인드, 인하공전에 21억 상당의 소프트웨어 기증

우리 대학은 10월 30일(월) 11시, 코드마인드(주)(대표이사 김은중, 신승철, 이하 코드마인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약 21억 상당의 '코요테 C++'와 '코드마인드 CSI/CQ'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2종을 기증받았다.

이번에 기증받은 소프트웨어 2종은 행정안전부, 현대모비스, LG전자 등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널리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덕분에 우리 대학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분야에서 실전 경험을 쌓아 현장 직무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요테 C++(Coyote C++)'는 완전 자동 단위테스팅 도구로서 C/C++로 작성된 소스코드를 대상으로 테스트케이스 작성부터 테스트 실행, 오류 검출, 결과 분석에 이르기까지 단위테스트의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자동검증 도구이다. '코드마인드(CodeMind) CSI/CQ'는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지 않고도 모든 실행 경로를 점검하여 소프트웨어에 숨어 있는 보안 약점과 실행 오류를 사전에 찾아주는 정적 분석 도구이다.

코드마인드 신승철 대표는 "이번 기증이 인하공전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인하공전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앞으로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10월 31일

실내건축학과, '대한건축학회 제3회 3D프린팅경진대회' 수상

우리 대학은 지난 10월 31일(화) 강원도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3회 3D프린팅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실내건축과 학생들이 최우수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건축학회가 주최한 '3D프린팅경진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아 3D 프린팅을 활용하여 미래 건축물과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 디지털 건축 및 건설기술의 우수성과 발전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했다. 최지혜, 전유진 학생이 출품한 작품 Πανθεονας(Pantheon)은 실제 건축물의 거대한 스케일이 주는 압도감과 석재의 정교함을 모형을 통해 신전에 방문한 듯한 느낌을 받도록 제작하여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다인 학생이 출품한 작품 "徽輝(아름다울 휘 빛날 휘): 아름답게 빛나다."는 내부 공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안한 방법으로 3D 프린팅 기술과 2D 메이킹 기술을 융합한 단면모형 제작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다인 학생은 "작품을 설계하고, 제작하면서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실내건축과는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실내건축인 양성을 목표로 설계와 시공에 중점을 두고 창의적인 공간설계와 시공 실무 적용을 강조하며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실내건축인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힘쓰고 있다.



2023년 11월 28일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우리 대학은 11월 28일(화) 교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3호관 교직원 식당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김성찬 총장을 비롯한 학생과 교직원 50여 명이 함께 총 250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이번 ‘사랑의 김장 나눔’ 김치는 지역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오병이어 무료급식소’에 전달했으며, 김치 외에도 젓갈류와 멸치볶음 등의 반찬을 전달하고, 또한 인하공전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하는 ‘리앤이 라마띠네’에서는 햅쌀 20KG 20포대를 함께 기부했다. 김 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열리는 김장 나눔 행사라 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 더욱 뜻깊고 보람 있는 행사가 되었다.”고 하며, “12월을 앞두고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인하공전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김장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2023년 11월 30일

HD현대중공업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간담회 직무전환 우수 사례 발표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30일(목) HD현대중공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개소식 직후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직무전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HD현대중공업 박호석 전무, SK서관희 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우리 대학에서는 김성찬 총장과 김종우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센터장이 참석했다. 우리 대학은 르노코리아와 산학협력 MOU 체결 등 완성차-부품업체 간 기술 이전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내연차 기업 내 중장년층 근로자의 원활한 직무전환을 지원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새로운 직무를 습득해 동일 사업장에서 역량을 지속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나아가,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채용예정자 및 외국인 직업훈련을 강화하여 중장년·청년·외국인 등 다양한 대상의 역량향상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현재 전국 20개 곳에서 운영 중이며, 이 중 우리 대학은 미래자동차로의 산업전환을 위한 하이브리드자동차 과정, 전기자동차 과정,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과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개소 이래 약 천여명이 과정을 이수했다.



2023년 12월 4일

인하공전, ‘2023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참가

우리 대학은 11월 30일(목)부터 12월 4일(일)까지 총 4일간 ‘2023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교육부 주최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학교 안팎의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교육기부 모델을 전시하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행사이다. 우리 대학은 산업디자인학과 재학생이 창작한 캐릭터 ‘원점’으로 키링 제작 체험 부스를 운영하였다. 원점은 우리 대학 교내에 위치한 수준원점에서 따온 이름으로 우리 대학이 개교한 1958년 무술해인 황금 개해를 모티브로 삼고 있다. 또한 찰흙을 이용해 다양한 모양의 인센스 홀더를 만드는 체험도 진행하며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박람회에 참여해 자녀와 함께 인센스 홀더를 제작한 한 학부모는 “찰흙을 이용해 원하는 형태를 구상하고, 함께 손으로 만들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며 “간단한 체험이지만 자녀와 함께 체험하며 기억에 남을 작품을 가져갈 수 있어 더욱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은 체험 박람회 외에도 항공기 내 비상 안전 VR 체험과 객실 승무원 체험 등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 체험과 대학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험생 및 청소년들에게 진로 진학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23년 12월 6일

인하공전, 생태교통 출퇴근 릴레이 챌린지 참가

우리 대학이 환경보호와 친환경 교통수단 장려를 위한 ‘생태교통 출퇴근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지난 10월 수원시가 기업, 학교, 공공기관, 단체 등으로 탄소 중립을 확산하기 위해 시작한 ‘생태교통 출퇴근 릴레이 챌린지’는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 전체가 특정한 날을 정해 자율적으로 지하철, 버스, 자전거, 도보 등으로 출퇴근한 뒤 SNS를 활용해 기관 3 곳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챌린지다. 우리 대학은 안산대학교로부터 챌린지를 이어받아 12월 6일(수)을 ‘생태교통 출퇴근 릴레이 챌린지’ 날로 삼아 교직원 및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날 김 총장은 지하철로 출근하며 등교하는 학생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김 총장은 챌린지에 참여하며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으며, 인하공전 구성원과 함께 앞으로도 탄소 중립과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 총장은 다음 챌린지 대상으로 경인여자대학교(총장 박명순), 재능대학교(총장 이남식),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교장 김종찬)를 선정했다.

좋아요!





인하공전이라서!